"질롱에서 좋은 경험…나만의 S존 형성"

KIA 내야수 김규성 주전 욕심 시즌 앞두고 시범경기 맹타 "이병규 감독님 조언 큰 힘"

"작년보다 타격이 좋아진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KIA 타이거즈김규성(26)이 올 시즌 내야 주전을 욕심내고 있다. 그동안 수비에 비해 타격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기를 받았던 김규성은 호주리그 경험을 밑거름으로 올해 시범경기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김규성은 지난 20일 LG와의 시범경기에 서 9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멀티히트를 기록 했다. 앞선 지난 16일 키움전에서는 균형을 깨는 홈런포를 날리며 업그레이드된 장타력 을 보였다.

2016년 신인드래프트 2차 7라운드로 다. 호주에서 계속 시합을 나가다 보니 나만

KIA 유니폼을 입은 김규성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비와 주루에 비해 타격이 이쉽다' 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까지 기록은 통산 227경기 타율 0.173, OPS 0.487이다. 아쉬 운 타격에도 1군에서 꾸준히 기용된 것은 안 정적인 수비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8년 차를 맞는 올 시즌은 다르다.

김규성은 지난해 11월 호주 프로야구리그 질롱코리아에 파견을 다녀오고 스프링캠프 를 거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초파견이 예정됐던 김도영(20)의 부상으로 대신 질롱코리아에 합류한 김규성은 그곳에 서 27경기에 출전해 3홈런 13타점으로 3할 에 가까운 타율(0.281)을 기록했다.

지난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오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다"고 덧붙였다. 만난 김규성은 "질롱에서 좋은 경험을 했

의 스트라이크존이 형성됐다"며 "경기를 뛰 다 보면 타이밍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발전된 것 같다" 고 말했다.

특히 김규성에게 힘이 된 것은 이병규 질 롱코리아 감독의 조언이다.

김규성은 "호주 첫 경기에서 삼진만 4개를 호주에서의 경험으로 타격에서 자신감을 얻 당했다. 이병규 감독님께 내 타격에 대해 여 쭤봤는데 '타석에서 자신감이 없다. 내 스윙 을 못한다'고 지적하시더라. 그 말에서 많은 생각을 했고 내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설명 했다. 이어 "감독님이 '타석에서 스스로가 어 떤 공을 칠지 선택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자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에는 내 스트라이크존에 왔다 싶으면 공을 적극적 으로 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결과도 나

> 더불어 김규성이 호주에서 복귀 후 연습・ 시범경기에서 연일 맹타를 휘두르는 이유 중

하나는 단연, 간절함을 더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주전이 가장 욕심난다. 좋은 기회가 찾아와 주전이 된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백업이 된다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타격에서 기복이 있지만 내 루틴 에 꾸준한 연습을 더하겠다. 좋은 감각을 유 지해야 그런 기회도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작년, 재 작년에 비해 타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올해 목표로 정했다. 타격 타이밍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시즌 개막이 눈앞이다. 지난 2020년 103경기에 출장하며 풀타임을 경험하기도 했던 김규성이 타격에서 실력을 입증한다면 언제든 내야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치열한 KIA 내야 경쟁을 뚫고 백업에서 주전으로 도 약할 수 있을지 김규성의 활약이 기대된다.

/조혜원 기자



김규성



일본 야구 대표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결승에서 미국을 3-2로 누르 고서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김옥금·정진영·장경숙·백지운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

광주시청 김옥금(63)과 정진영(55), 전 남도 장경숙(54)과 백지운(53)이 2023년 장애인양궁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22일 광주시·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 르면 김옥금·정진영·장경숙·백지운은 대 한장애인양궁협회가 지난 9~20일 개최한 2023년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에 참가, 3라운드 합산 결과 장애인양궁 국 가대표 12명 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7월 2023년 세계 장애인양 궁 선수권대회와 10월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광주시청 정진영은 여자 컴파운드에서 총 배점 95점으로 1위에 올라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광주시청 김옥금은 여자 W1에 서 총 배점 112점으로 1위, 전남도 백지운 은 84점으로 2위에 올라 나란히 선발됐다. 전남도 장경숙은 여자 리커브에서 80점을 기록해조장문(서울특별시)과함께태극마 련에 합류한다.



정진영(왼쪽)과 김옥금

크를 달게 됐다.

선발된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12명은 오 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천선수촌 양 궁장에서 진행되는 제1차 국가대표 강화훈 /최진화 기자

일본, 미국 꺾고 통산 세 번째 WBC 우승

3-2 승리 ... 오타니 MVP

일본이 전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에서 뛰는 호화 멤버로 팀을 꾸린 '야구 종가' 미국을 제압하고 2023 월드베 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승했다.

일본은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결승 에서 미국을 3-2로 따돌리고 2006년, 2009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이자 14년 만 에 WBC 정상을 밟았다.

선발 이마나가 쇼타(요코하마 DeNA 베 이스타스)를 비롯해 7명이 이어 던진 일본 마운드는 이날 선발 타자 기준 2억달러가 넘는 미국의 막강 타선을 산발 9안타 2점으 로 틀어 막고, 견고한 방패의 위용을 전 세 계에 떨쳤다.

극적인 한 방으로 두 나라를 결승에 올린

트레이터너(필라델피아필리스)와무라카 미무네타카(야쿠르트스왈로스)의홈런포 로 결승의 막이 올랐다.

터너가 2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마 나가의 낮은 직구를 퍼 올려 왼쪽 펜스를 넘 어가는 선제 솔로 아치를 그렸다.

그러자 일본의 무라카미가 2회말 곧바로 동점 솔로 홈런으로 응수했다.

승기를 잡자 구리야마 히데키 일본 감독 은 3회 도고 쇼세이(요미우리 자이언츠)를 투입해 불펜 이어던지기로 미국 봉쇄에 들 어갔다.

일본은 4회말 오카모토 가즈마(요미우 리)의 좌중월 솔로 홈런으로 3-1로 격차를 벌렸다.

미국은 8회 다루빗슈 유(샌디에이고 파 드리스)를 두들긴 카일 슈워버(필라델피 아)의 우월 솔로 홈런으로 2-3 턱밑까지 추

격했지만, 9회 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오타 니 쇼헤이(에인절스)를 넘지 못했다.

3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타석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두 번 출루한 오타니는 슬라이딩으로 더러워진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마운드에 올라섰고 선두 맥닐에게 볼 넷을 내줬지만, 베츠를 2루수 병살타로 잡 고 포효했다.

이어 마치 시나리오를 짠 듯 미국 대표팀 의 주장이자 에인절스에서 한솥밥을 먹는 빅리그 최고 타자 트라우트를 마지막 타자 로 맞았다.

이번 대회 최고 하이라이트인 이 장면에 서 오타니는 시속 161㎞ 광속구로 투 스트 라이크를 잡고 풀 카운트에서 바깥쪽으로 휘는 강력한 슬라이더로 트라우트를 헛스 윙 삼진으로 잡고 '쇼타임'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2023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

광주체육중이 22일 밀양에서 막을 내린 2023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 대회에서 여중부 3학년 개인단식 우승과 전 학년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 제공

광주체육중, 배드민턴중고연맹회장기 싹쓸이

여중부 전 학년 복식 정상

광주체육중학교가 13~22일 밀양시배드 이 잇따랐다. 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3 한국중고배드 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 여중부 3학년 개인 단식 우승과 전 학년 복 식 우승을 달성했다.

김나연은 여중부 3학년 단식 결승에서 마 산 성지여중 김보혜를 2-0(21-18 21-10) 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김나연은 3 학년 복식경기에서도 권혜원과 조를 이뤄 성지여중 이송현-김민채조를 2-0(21-3 21-12)으로 완파,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청소년국가대표인 김나연-권혜원조는 이 대회 학년별 복식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 했다. 김나연은 광주체중·광주체고 출신 안세영의 뒤를 이을 셔틀콕 유망주로 주목

을 받고 있다.

여중부 1학년과 2학년 복식에서도 우승

이윤서-김민조는 1학년 복식 결승에서 양동중 민채윤-정예은조를 2-0(21-16 21 -14)으로, 여서영-손수빈조는 2학년 복식 결승에서 청송여중 신소민-정윤지조를 2-0(21-16 21-12)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등부에서는현수민(전대사대부고)-이 나라(광주체고)조가 1학년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유현빈(전남과학기술 고)-연서연(화순고)조는 2학년 혼합복식 에서 2위를 했다. 연서연은 2학년 여자복식 에서 안원희와 함께 은메달을 추가했다. 화 순고가 여고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수피아여고 춘계중고농구 준우승

분당경영고에 63-66 석패

수피아여고가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 고농구연맹전 여고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수피아여고는 22일 해남 우슬체육관에 서 열린 대회 여고부 분당경영고와 결승에 서 63-66(17-14 11-17 16-23 19-12)로 아쉽게 패했다.

대회 첫 경기에서 대전여상을 125-54로 대파한 수피아여고는 분당경영고에 58-68 로 지고 숭의여고에 75-69로 승리, 6강에 올랐다. 6강에서는 효성여고에 71-63 승리 를 거뒀고 준결승에서 온양여고를 82-76으 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예선에서 10점차 패배를 당했던 분당경 영고를 결승에서 다시 만난 수피아여고는 설욕을 꿈꿨다.

1쿼터에서조민하(3년)와이가현(1년)이 15득점을 합작하는 등 17득점을 올리며 리 드를 잡았으나 2~3쿼터에서 분당경영고에 다소 밀렸다. 4쿼터에서 조민하가 7골, 고현 지(3년)와 이가현이 각각 6골을 터트리며 분전했으나 이쉽게 3점차 석패를 기록했다.

국가대표 센터 출신 조문주씨의 딸 고현 지는 이날 14점, 12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급 성적을 기록했으나 우승을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최진화 기자